

보건 진료원 신설에 따른 당면과제 및 이의 수급을 위한 현실적 방안

홍 여 신
(서울의대간호학과 교수)

백오지 간호원에게 진료원이 부여된다는 최근의 결정을 환영한다. 인류 복지에의 기여를 이상으로 삼는 보건의료사업이 의료 자원의 제약과 구조적 부조리에 의해 국가 사회 경제 발전에 상관없이 소기의 성과를 얻을수 없었던 과거에 비추어 전 국민에게 고루 미칠 건강 관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으로 보건 의료 인력 자원의 보다 효율적 이용의 방도를 구상한다는 것은 뛰늦은 감이 있는대로 꼭 다행스런 일이라 본다. 더욱이 기왕에 잘 훈련된 다수 간호 인력 자원이 사회 경제적 여러 요인에 의해 전문 직업인으로 보건 사회 봉사의 일선에서 효과적으로 적극 참여할 수 없었던 현실에 비추어서 잠재 간호 인력 활성화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당연한 귀결이라 본다. 이미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이 주도하는 보건진료원 훈련계획이 입안되어 차차 진행되어 가는 중이고 불원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었던 대다수 농어촌 지역에 의료의 손길이 뻗어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다음 부풀게 한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국민 건강 관리에의 발돋움이 특별조치법이 의미하듯이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는 감정적이고 일과성의 응급 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진정한 발전으로의 터전이 되게 하기 위해 몇가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져 나가야 할 일들이 있다고 본다. 전래적인 사설 기업이 주축을 이룬 진료 사업과 공공 사업으로 판장되어 온 예방보건사업의 분리가 국민보건의료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는 제도적 문제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종래의 진료 중심 사업은 의료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시설 투자에 비례하는 의료수가의 인프레를 자극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국민의 의료 수혜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했고 의료안들은 준비된 시설 안에서 자의로 내방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에 그 역할을 국한시킴으로서 시설 밖의 인구 혹은 내원하기전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제한된 진료 이전의 문제나 진료 이후의 재활 문제등엔 아무런 관심이나 책임을 느껴오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반면 진료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진성을 면할수 없었던 예방 보건 사업은 그 한정된 사업 성격에 의해 급만성 전염병 퇴치를 위한 경찰력으로 등장해 왔다는지 혹은 최근의 가족 계획 사업처럼 전통적 가치 개념에 크게 도전하는 판재 사업으로서 균질해은 이베지로 해서 그 공적이 름에 비해 일반인들 사이에 그 사업에 대한 기꺼운 호응을 유발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있었다. 또한 엄격히 구분되어은 소관 업무간의 두꺼운 벽으로 각종 의료시설 및 의료 요원간에 상호 협조하여 자기 맡은 환자와 지역 사회 이익을 위해 크게 공헌할 수 있는 풍토와 길을 마련하지 못하였던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러한 지난날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진정한 국민 보건 사업으로 발판을 굳히려면 새로이 전개되는 보건 의료 사업은 전통적 체제의 단순한 연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은 자명한 일이라 본다. 제한된 의료 자원으로 실현성 있고 지역 주민에게 수용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을 전개하려면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의료체

제와 조직적인 활동의 모를 살리는데 그 중요한 변화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금년 통과된 특별조치법과 보건 요원 특수 훈련 계획에 의해 의료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간호 인력이 법적 전통적인 제한이 완화되어 보건 의료 취약 지역에서 보건 의료 사업의 일선에서 활약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국민 보건 증진이라는 관점에서나 간호사업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공히 경하해 마지할 사실이다. 그러나 취약지역에 보건 진료원을 투입한다는 사실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물적, 기술적, 행정적 지원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종래의 다원적 체계 속에서 누구도 종합적인 건강 관리 책임을 질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진료 요원이 격리된 상황속에서 불가항력적인 많은 업무들 혼자 감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벽오지 농어촌지역에서 활약하게 될 보건 진료원의 역할과 업무는 정확히 정의되어야 하고 업무 수행상 관련 되어질 모든 사회 조직, 의료 시설 및 행정기구와의 관계는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해서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주고 받는 일과 상호 교류 의뢰하는 일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처되어야 한다.

새로이 투입되어질 보건진료요원에의 기대는 서로 처한 입장과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할 사실은 보건 진료원의 투입은 농어촌 지역에 의료의 질의 저하와 의견의 쟁해를 염려하는 2급 의료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보건 진료원의 투입은 종래에 주어지지 않던 새로운 건강 관리 서비스의 창출을 의미하며 현재까지 소외되어 있는 미다수 농어민에 대한 총괄적인 보건 진료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에 대한 요구를 좀 더 정확한 건강 평가와 Screening 과정을 통하여 기존 의료 자원의 보다 효율적 이용으로 이끄는 교량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

대된다. 그뿐 아니라 보건 진료원이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둘수 있는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펴나가기 위해선 협조 가능한 모든 지역 사회 의료 및 사회 기구 조직과 긴밀한 유대를 갖고 새로이 훈련된 독자적 전문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많은 지역 사회 자원을 총칭으로 연결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해당 지역사회속에서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역할은 종래에 없었던 새로운 건강 관리 서비스의 일면으로서 보건 진료원 업무 중 상당한 부분이 예방적 건강, 증진적 차원에서 지역 사회 주민의 집단적 건강 관리, 자조 능력신장과 관계 기관 조직 간의 원활한 협조적 관계 조성에 경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수 있다. 이와같이 지역사회 보건 의료원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할 보건진료요원 교육에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획득 못지않게 변화된 역할에 대한 수용과 훈련이 필요하게 된다.

한편 어떤 역할의 변화에도 그 역할의 변화에 영향받는 상대역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보건 진료원으로 훈련받은 간호원들이 일차보건진료영역에서 확대된 새로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그의 상대역으로서의 소비자, 즉, 지역 주민과 의사를 위시한다는 모든 보건 의료팀이 그의 새로운 역할을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의 역할을 적정하게 수정하려는 수용적인 자세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역할의 변화같은 사회 심리적인 과정은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새로운 인력이 투입되어 실질적인 보건 진료 사업의 성과를 거두게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과 경험의 축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급한 단기적인 평가로서 그 성과를 결정하려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될 것이다. 비슷한 프로그램을 적용했던 다른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2~3년의 실무경험이 쌓인 후엔 기대했던 적정 수준 이상의 업무 수행이 가능했지만 프로그램 전개 초년도에는 기대했던 수준의 업적을 올릴 수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 진료원의 역할과 그를 포함하는 지역보

건 의료 사업이 효과적으로 토착화되기 위해서는 계획, 훈련 및 업무 수행의 각 단계에서 관련있는 인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상호 이해와 협조를 위한 지름길이 된다고 믿는다. 다음으로 생각되어야 할 문제는 효과적인 지원 체제를 확립하는 문제이다. 일차 보건의료라는 개념은 동시에 2차, 3차 보건의료를 수반하는 체계적인 접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상위 조직과의 연계 내지 여러 형태의 기술적인 지원은 일차보건의료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과거 이러한 기술적 교류에서 소외되어 단독 개업한 개업의들의 진료의 질에 대한 논의가 많은 문제를 노출시켰던 사실을 참작하더라도 금번 훈련 배치되어질 보건진료원 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실시 업무 지도, 요원 상호간 정보 및 아이디어 교환, 자문 및 환자 의뢰 체계 등 기술적인 지원 체계와 원활한 물자 공급, 현실적인 보수, 승진 및 계속 교육의 기회, 선택적인 업무 교체 계획 등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행정 지원 체계의 확립은 필수 여건이 된다.

이들 지원 체계의 효율성은 단기적으로는 벽오지에 배치되어 활동하는 보건진료원 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그들이 떠 나갈 사업의 질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이들 보건 진료원의 사회적 효능 내지는 국민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 전반기에 대한 평가와 사업의 영구적인 토착화를 가름하는 기본 요소가 되며 중궁적으로는 실질적인 국민 보건 향상을 기하게 하는 길이 된다고 본다.

이렇게 보건진료원으로서의 간호원의 새로운 역할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 체계가 확립된다고 하더라도 이 필요한 자리를 채우고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요원의 확보가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고 본다. 특히 절대 다수의 간호원이 여성이라는 점과 이들에 대한 전통적인 기대가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과 특히, 문화적 혜택에 뒤진 벽오지라는 입지 조건들이 이들 요원 확보의 문

제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소한의 적정 생활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과 함께 효율적인 인사 관리의 중요성은 재연의 여지가 없다.

앞서 언급한 이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사회적 인식을 불러 일으키고 이들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뒷받침할 지원 체계가 확립된다는 것 자체로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들 요원의 유치 확보에 크게 공헌할 여건이 마련된다고 본다. 잠정적으로 혹은 간단없는 수요 공급의 균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전국 방방곡곡에 자리하고 있는 간호 교육 기관들이 각기 해당 지역 요원 확충, 훈련, 배치, 지도교제 및 계속 교육 등의 계속되는 인사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지방 교육 기관의 참여는 요원 확충이라는 면 이외에도 지역 주민을 알고 지역 사정에 밝다는 이유 때문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에의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요원 충원 문제에 있어서는 각급 간호계 학교의 적극적인 협력을 전제하고 보면 전국적으로 매해 새로 배출되는 간호계 학교 졸업생수와 현 인원을 합치면 절대수에 있어 간호 인력 배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연차적 계획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점은 지역 보건의료 인력의 절대수의 부족이란 관점에서나 업무수행에 지속적인 활력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벽오지에서 홀로 격리되어 사업을 이끌어가기 보다 함께 일하면서 팀웍이 가능한 수의 진료요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적정수의 잘 훈련된 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지역 간호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또는 조직 운영되는 정기 집담회 같은 것을 활용하여 동료간 업무사태분석 또는 필요한 정보 및 의견 교류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체제가 앞서 논의된 종적인 지원 체계와 함께 운영된다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지방 간호 교육 기관의 역할은 행정적으로 지원되고 공식으로 위임된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그 효과가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번 지방 몇개 대학 및 기

다 간호 교육 기관이 보건 진료원 훈련 기관으로 위촉되어 보건 진료원 교육을 담당하게 계획된 일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일과성의 교육 훈련 업무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훈련된 요원에 대한 지원 및 계속 교육을 포함하는 지역 요원 관리의 중심체로서 작용해 줄 수 있게 되길 요망한다.

마지막으로 부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일차 건강 관리 책임의 일부가 간호 업무의 일환으로 부상되어야 할 요구가 있는 것이라면 잠정적인 보건 진료원 교육은 점진적으로 정규 간호교육 과정으로 흡수되어 장차 졸업하는 간호원은 누구나 지역 사회의 최전선에서 일차 건강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때 일차 건강관리'의 책임은 간호원들에게 아주 생소한 역할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 대학 간호 교육 내용의 상당 부분은 보건진료원에게 기대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충분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일부 특수 업무 수행에 관련하여 기초간호교육과정에도 보완되어져야 할 영역으로 조직적인 건강사정법, 독자적 결정을 내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역할 수용에 대한 훈련 및 지역사회 역동을 체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등이 지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건진료원이라는 이름으로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에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폭넓은 건강관리사업을 전개해 나갈 책임은 간호계에 주어진 적절한 역할로서 간호원의 사회적 효능을 다시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본다. 이러한 시점에서 간호계와 전체 의료계는 공히 전국민의 건강관리라는 차원에서 전체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를 바로 사정하고 자기 맡은 역할을 재정의 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협조적 관계속에서 공동의 목표 성취를 위해 자기의 임무 수행을 서로 지원하는 상호부조의 풍토 조성이 어느때보다도 더 절실히 요청된다고 본다.

이 달의 수증간행물

인간과학, 제 4권 10호(10월호), 성심중앙유지재단
 자궁내장치 시술 훈련이수자—활용실례와 그들을 동
 해 관찰된 자궁내장치 시술사업과 분만개조사업
 가족계획연구원
 재활연구, 제 6호, 12월호, 삼육아동재활원
 지역사회 정신건강이념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역
 할인식정도, 차영남, 연세대 대학원 간호학과
 1980년도 가족계획사업평가세미나보고서, 가족계획
 연구원
 看護技術, 제27권 2호(2월호)
 American Journal of Nursing, Dec. 1980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11,12월호)

Nursing 80 (11월호)
 Philip pine Journal of Nursing, Oct.-Dec., 1979
 Primary health care-To Search the Health
 Strategies in 1980s, INEJ
 The Australian Nurses Journal, Vol. 10, No. 5
 (11월호)
 The Australasian Nurses Journal, Vol. 9, No. 11
 (11월호)
 The Canadian Nurse(2월호)
 The Nursing Journal of Singapore(8월호)
 World Health(11월호), WHO.